

똑같은 한 걸음도
무게감은 다르다!



인정엑스포?

VS

등록엑스포!



사상 최대 진짜 엑스포!

민선 6기 부산시가 추진하는 진짜 EXPO,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로 국가적 위상부터 다릅니다.

BUSAN WORLD EXPO 2030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엑스포, 등록엑스포란?

엑스포는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이익 증대, 인류에 발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인류공동의 가치실현,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제 메가 이벤트입니다.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큰 이벤트로 유·무형의 효과가 막대함이 입증되어, 국가간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월드컵, 올림픽보다 월등한 '등록엑스포'

월드컵, 올림픽은 국가홍보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지만, 등록엑스포는 주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므로 개최도시의 경제효과 창출이 막대합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록엑스포
개최기간	1개월	16일	6개월
관람객	300만명	300만명	5,050만명
경제효과	11조원	12조원	49조원

2030 부산등록엑스포 개최(안)

기간 : 2030. 5. 1 ~ 10. 31(6개월간)
장소 : 서부산 일원 350만㎡
참가국 : 160개국(관람객 5,050만명 이상)
개최효과 : 투자액 4조 4천억, 경제효과 49조, 일자리 54만개

	2010 상하이	2015 밀라노	2020 두바이
투자액	5.2조	4.3조	6.9조
경제효과	110조	63조	38조
일자리	63만개	15만개	28만개

부산체육

2016 11+12 | 통권 4호
www.sports.busan.kr



BUSAN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Jobs

EXPO

49
Million
Visitors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2030

49
Million
Visitors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 많은 아닙니다.
대규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로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에 따른
효율효과인 부산 2030엑스포
유형 관광도시가 될 것 입니다.

CONTENTS

People & People

- 04 파워 인터뷰_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 08 이달의 인터뷰_최영완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팀 감독
- 12 11월의 칼럼_류명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장

부산체육_Panorama

- 14 스페셜 리포트_ 2016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및 글로벌스타선수 장학금 전달식
- 16 중인_부산광역시체육회 제3차 이사회
- 18 정책_「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
- 20 스포츠 특특_2016 스포츠인권향상 교육
- 22 스쿨 오브 락_2016 대학종합축제한마당
- 24 Festival_제27회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체육인 통합의 밤
- 28 7일간의 감동_제97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 34 희망을 달리다_제5회 부산 초·중학생 육상경기챌린지대회
- 36 열정 가득_제27회 부산광역시장기 족구대회
- 37 Award_부산광역시양궁협회 이승락 회장 장관상 표창
- 38 찾아가는 행복_제12회 부산산악문화축제, 제47회 금정제 및 제28대 부산산악협회 김경섭 회장 취임식
- 40 첫발을 내딛다_성서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

센터엔터_건강 프로젝트

- 42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44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스페셜 테마_In the sports world

- 46 스포츠 무게_바벨을 들다
- 48 스포츠 직업_스포츠 마케터
- 50 2016 스포츠 영웅_대한체육회, 2016년도 스포츠영웅에 '김연아' 선정
- 52 위대한 스포츠인_‘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News Briefing_부산시정·체육정책

- 56 부산광역시·문화체육관광부

Travel & skiing

- 62 겨울여행_부산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 64 스키 안전사고_보험과 안전수칙으로 대비하는 스키장 사고



14



22



28



62

부산체육 2016 11+12 | 통권 4호
부산체육인은 2030엑스포 부산유치를 지원합니다.

발행일 2016. 11. 30.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4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이성재, 서원택, 임성하, 하나근, 김민지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Tel 051. 500. 1300 / 500. 7900 Fax 051. 500. 1309 / 505. 6306 www.sports.busan.kr
부산국민체육센터 Tel 051. 243. 5959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로 150 북구국민체육센터 Tel 051. 365. 707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55번지
디자인·인쇄 (주)세영애드인 Tel 051. 636. 75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1 ※ 이 간행물은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의 사랑에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지난 10월 13일 막을 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 배구 실업팀이 결승전에서
상무를 완파하며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 화제다.
부산에서 향토기업이 배구 실업팀을 창단한 것은 최초다.
부산공동어시장 배구 실업팀은 창단 첫해 우승을
시작으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을 만나
그날의 감격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L E E J O O H A K

씨름팀의 명성 잇는다

창단 9개월 만에 전국체육대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부산
공동어시장 배구팀. 부산시체육회가 운영하던 팀을 부산시
와 부산공동어시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한 것은 일 년이 채
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 28일 부산시와 창단 협약을 체결
하였고, 올해 1월 27일 창단식을 개최했다.

“배구 실업팀을 창단하기까지 부산시체육회의 지속적인 요
청이 있었지만, 부산공동어시장의 사정상 선뜻 수락할 수 없
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 개장 이후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우리나라 최대의 산지 수산시
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학 사장은 부산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는 사명감과 의무감을 느껴 어시장 5개 회원수협 조합장들
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사실 부산공동어시장
은 1974년부터 20여 년간 씨름팀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
시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등 많은 씨름 스타를 배출했으며,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하는 등
아마추어 최강의 씨름팀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어시장
의 내부사정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팀을 해체하게 되
었다. 부산 향토기업으로서 최초로 배구 실업팀을 창단한
만큼, 더욱 굳건한 각오가 필요했던 이유다.





**내년에도
목표는 '우승'**

현재 팀에는 박선출 선수와 이형두 선수 등 프로 출신 선수들이 많다. 슈퍼리그와 V리그에서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고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팀의 전신인 '부산시체육회 배구팀' 또한 2011년 전국체육대회 준우승 이후 계속 3위를 하는 등 전력이 우수했다. 묵묵하게 선수들을 이끌어 온 김성면 감독과 선수들의 오랜 노력과 집념이 이번 우승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취약 포지션 3명을 보강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 것이 주효했고 운도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자 저를 포함한 직원 40여 명이 천안까지 원정 응원을 갔습니다. 결승전 상대가 아마추어 최강인 국군체육부대였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팀을 위해 목이 터져라 함께 응원했습니다." 기적처럼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했다는 이주학 사장의 내년 목표는 단연 '우승'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이기에, 목표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부족한 포지션 보강을 위한 선수 영입을 고려 중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표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장기적
성장 도모 필요**

평소 선수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훈련을 병행하다가 시합을 앞두고 2주가량 합숙훈련을 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부산을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이니만큼 감독, 코치, 선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아 훈련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으로 훈련을 소화해냈다. 이런 선수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공동 구단주로서 마음이 쓰이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업팀 구단주가 되어보니 실업팀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꾸준히 순위권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전용 연습구장이 없다는 점, 대부분 선수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조기 은퇴확률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이주학 사장은 공동 구단주로서의 책임감과 지원의 한계에 대해 통감하며,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체육회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 연습구장의 경우 현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의 구덕운동장, 기장체육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란 생각이다. 저연봉 선수들에게도 은퇴 후 재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등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39년간 부산공동어시장과
동고동락**

1977년 부산공동어시장에 입사하여 39년간 어시장과 동고동락해 온 이주학 사장은 2012년 8월, 직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장으로 선출됐다.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어시장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2015년 8월 연임할 수 있었던 것도 회원수협 조합장님들이 신임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어시장과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배구팀 창단을 계기로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부산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친근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 이주학 사장 약력**
- 부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 (부산공동어시장 배구 실업팀 공동구단주)
 - 국립해양박물관 비상임이사
 -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부회장
 - (사)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
 - 前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제9대 회장



올바른 근본 위에 위대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최영완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팀 감독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팀이 10월 충남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97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남고부에서 우승했다. 결승에서 만난 세종하이텍고를 2-0으로 꺾은 부산체고 세팍타크로팀은 대회 2연패를 일궈내며 전국 최고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 시작에는 2013년에 팀을 창단한 최영완 감독이 있다.



세팍타크로와 운명적으로 만나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축구부 생활을 하며 스포츠 정신을 배워온 최영완 감독은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교단에 서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운동부를 육성하고자 마음먹은 시점에서 세팍타크로를 알게 된 건 운명적인 인연이었다. 축구공보다 작은 세팍타크로공을 차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매력을 느꼈다.

“2006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했습니다. 세팍타크로의 매력에 빠져 열정과 노력을 쏟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기계공고 세팍타크로팀은 전국 1위는 물론 창단 12개월 만에 전국대회 최단기간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전국체육대회 우승에 이어 그랜드슬램(한 해 전관왕)을 전국 최초로 달성하기도 했다. 부산환경공단 겸임감독을 맡아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 부산 종합 우승을 거머쥔 것도 이때다. 이후 부산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서 부산체고에서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하게 됐다. 남들과 같아서 남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이기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가르쳐왔다.

“처음 세팍타크로팀을 맡았을 당시에는 종목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선수 스카우트는 물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세팍타크로만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 주변에서도 알아주시니 저도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근본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깊듯이, 모든 위대한
성과에는 장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승 노하우 전수로
최강 팀 만든다**

최영완 감독은 인성과 인격이 갖춰지는 청소년 시기에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항상 기본기에 중점을 두고 팀워크와 부지런함을 강조한다.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팍타크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려면 동기 유발과 성취도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훈련량과 공 하나를 달갈 다루듯 소중하게 다루는 집중력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는 것이 그의 훈련방식이다. 최영완 감독은 특히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가장 먼저 경기장에 도착해 운동을 시작하는 방식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한다.

“안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어느 때보다 편안했던 이유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과 지도자가 한마음이 되어 많은 훈련량과 강한 정신력을 끝까지 유지하여 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2년 연속
그랜드슬램 달성**

타 팀과 차별화된 훈련방식 때문일까. 지난해 5개 전국 대회를 모두 석권한 이 팀은 올해도 5개 전국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부산체고를 비롯하여 부산환경공단 남·여 세팍타크로팀도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부산팀은 세팍타크로에서 전국 최강의 팀인 셈이다.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부산체고, 부산환경공단의 관심과 사랑이 우승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는 생각이다.

“매 순간 고비가 있었지만 선수들과 지도자가 흔들림 없이 저를 믿고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 대회 참가 우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올해 우승에 대해 큰 감흥을 느끼기보다는 제가 가르쳐온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에 확신과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과에 대한 기쁨도 잠시, 부산체고 세팍타크로팀은 벌써 2017년도 훈련 준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나라 세팍타크로 종목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물론, 앞으로도 팀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부산환경공단 남자팀은 부산체육고 출신으로 구성된 평균 21세 선수단이다. 비교적 지원이 탄탄한 경기도와 충북 등 타 시도에 의해 선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체육대회
3년 연속 우승 도전**

최영완 감독의 마음속은 언제나 ‘우승’ 하나뿐이다. 2년 연속 그랜드슬램 달성 덕분에 내년 우승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도 사실이다. 내년에 3학년이 되는 두 명의 선수가 있고 신입생 중 좋은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대거 영입했기 때문에 부산체고의 위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훈련 주기화를 잘 고려하고 전국체육대회에 집중한다면 3년 연속 우승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4강부터는 팀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계훈련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신입생 5명과 체육관에서 합동 훈련 중이며, 12월 태국 전지훈련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강정일 교장선생님과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부산시체육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체고 세팍타크로팀 창단과 기반의 여건을 만들어주신 김창민 전 교장(현 학생교육원장) 선생님께도 같은 마음입니다.”

최영완 감독 약력

- 부산세팍타크로협회 전무이사
-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이사
-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 부산체육고등학교 체육교사





NCS

능력중심 사회를 여는 마스터키

조선 후기의 천재 군주였던 정조는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능력 중심의 인재교육에 힘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가문이나 당파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채용으로 정약용 등의 우수한 인재발굴에 성공했다. 그렇게 선발된 인재들은 과학, 농업, 문화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시 불필요한 스펙을 강요받고 있다. 어학, 학점, 해외 연수 경험 등의 스펙은 편리한 채용 기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스펙으로 걸러진 인재들이 막상 현장에 투입되면 실무를 알지 못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이런 낭비가 또 있을 수 없다. 이래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도, 성장시킬 수도 없다. 지금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했던 정조의 인재정책에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사업이다. NCS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크게는 24개 분류부터 작게는 887개 분류로 세분화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수행능력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NCS는 근로자 채용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기초하여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경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NCS를 개발 중에 있다. 스포츠 산업분야의 NCS는 12번째 대분류인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안에 4번째 중분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스포츠경기 및 지도' '스포츠 마케팅' '레크리에이션' 등 5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소분류 안에는 '선수스포츠지도' '일반인 스포츠지도' '건강운동관리'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라이선싱' 등 14개의 세분류와 121개의 능력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소분류인 '스포츠경기 및 지도'와 세분류인 '일반인 스포츠지도'와 '건강운동관리'는 2015년에 이미 개발을 끝마친 상태이며, 나머지는 올해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스포츠산업에서도 NCS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심의 채용이 가능해진다. 구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업주는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CS는 평생능력개발체계를 만들어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NCS는 일반적으로 8단계까지의 등급으로 직무능력 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스포츠 직무의 경우 현재까지는 5단계의 등급을 정하여 각 단계별로 성취하여야 하는 능력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하위 단계에서는 짧은 경력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술 및 지식 수준을 다루고 있고,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긴 시간의 경력기간 동안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직무능력에 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 입사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지 해당 직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다른 직

무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직무능력이 필요한지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NCS는 단지 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NCS를 기반으로 만든 채용시스템이 독일, 스위스식 도제 교육 시스템을 본떠 만든 일학습병행제이다. 말 그대로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현장전문가가 실무지식을 교육한다. 스포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의 포커스 전략으로서 NCS 기반의 일학습병행제도 통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으로의 진로희망을 꿈꾸는 청년에게 일학습병행 지정 스포츠전문기업에 선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인증 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동시에 대학 학위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NCS사업은 학교교육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이다. 하지만 이 마스터키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스포츠산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NCS사업의 참여 주체인 근로자와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NCS를 통한 산업현장과 교육기관이 끊임없이 스포츠산업 직무능력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장
류명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선수단 격려 및 글로벌스타선수 장학금 전달식

부산대표선수단은 14개 종목 출전, 진종오 금 등 3개 메달 획득

지난 9월 19일(월) 부산시청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출전선수단 격려 및 글로벌스타선수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수 체육회장을 비롯한 올림픽에 참가한 부산대표선수단 및 관계자와 글로벌스타로 선발된 5명의 선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병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산의 미래 올림픽선수들이 될 체육 영재들을 격려했다.



글로벌스타 5명 선발, 세계 진출 기대

지난 8월 개최된 제31회 리우올림픽에 참여한 부산선수단은 14개 종목에 지도자 10명, 선수 32명 등 총 42명이 출전했다. 그 중 사격에 진종오 선수가 올림픽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태권도 김태훈 선수와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신승찬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여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 다이빙 역사를 새로 쓴 우하람 선수와 요트 하지민 선수 등이 올림픽에 출전하여 부산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진출할 스포츠 영재를 글로벌스타 선수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올해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여 가능성을 보여준 우하람(부산체고·3년) 선수와 쇼트트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건희(만덕고·1년) 선수, 전국소년체육대회를 3연패한 박규리(주례여중·3년) 선수, 세팍타크로 고등부 최우수선수인 이우진(부산체고·3년) 선수, 세일링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욱(해강중·2년) 선수 등 5명이 글로벌스타선수로 선발되었다.



부산지역 체육인재 선발 위해 조성

부산글로벌스포츠스타선수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부산체육발전을 위해 '부산체육발전 후원회'에서 자발적인 협찬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으로 부산지역 중·고교 선수 중 기량이 출중하고 스타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은 "올림픽에서 부산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산시민에게 감사드리고,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스타선수들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6년도 글로벌스타 선발 현황



우하람 선수

소속 부산체고 3학년 **종목** 수영(다이빙)

주요 입상경력

리우올림픽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11위 / 제96회(2015년) 전국체육대회 스프링 1m·3m 금메달, 플랫폼 금메달

주요 이력 2012.3.~국가대표



김건희 선수

소속 만덕고 1학년 **종목** 빙상(쇼트트랙)

주요 입상경력

2016/2017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대회 2차(여자 3000m 3위, 1500m 2위), 1차(1500m 3위, 1000m 2위) /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여중 1500m 2위, 3000m 2위, 3000m 릴레이 3위

주요 이력 2016.5.~국가대표



박규리 선수

소속 주례여중 3학년 **종목** 육상

주요 입상경력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 태백산배 제13회 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 /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제44회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5000mW 1위

주요 이력 2016.7.~청소년대표 / 전국소년체육대회 5000mW 3연패



이우진 선수

소속 부산체고 3학년 **종목** 세팍타크로

주요 입상경력

제17회 전국 남·여 종별 세팍타크로대회 남고부 1위 / 제27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남고부 1위 / 제27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남고부 1위 /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1위

주요 이력 2015.8.~청소년대표



김동욱 선수

소속 해강중 2학년 **종목** 세일링(옵티미스트)

주요 입상경력

2015 1차 국가대표선발전 옵티미스트 1위 / 2차 국가대표선발전 3위 / 3차 국가대표선발전 1위, 단체전 2위 / 3차 국가대표선발전 1위

주요 이력 2015.~ 국가대표

부산광역시체육회 제3차 이사회

부산체육 활성화 위한 심의의 장

지난 10월 25일(화) 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가 개최돼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보고, 2016년 대학종합축제한마당 개최 결과보고, 제27회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체육인의 밤 개최 계획, 회원종목단체 임원인준 현황 등 주요업무 보고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종합실내테니스장 수탁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Board of Directors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발전방안 모색

제3차 이사회에서는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비인기 종목인 하키와 핸드볼이 전국체전에서 소중한 1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선수 저변 확대 등 비인기 종목에 더욱 투자를 하여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내년 체전에서는 5위도 할 수 있다는 당찬 각오와 다짐도 있었다. 종합 실내 테니스장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정구종목도 소외 받지 않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

청렴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 기대

지난 9월 27일(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체육회 임직원,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바른 인식과 이해 필요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곽규택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위법사례, 위법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일부 종목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각출을 해서 지도자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 하는 질문에 곽규택 변호사는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촉이 되며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배(구체육회장배) 대회 진행 시 회원종목단체에서 스포츠 부상 또는 기념품 협찬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등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 주요 내용

우선 공직자를 비롯하여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법안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사·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2016 스포츠인권향상 교육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필요

지난 11월 2일(수), 3일(목) 시체육회는 부산체육중·고등학교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을 예방·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스포츠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처벌규정, 스포츠인권센터 이용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좌) 한국창의인성 교육원 김준호 이사장
중) 부산체육중학교(3) 도관우 선수
우) 부산체육중·고등학교 박지은 체육교사

MINI INTERVIEW

Talk! Talk!

박지은 체육교사 / 중·고등학교 겸임감독 (양궁)

학생들이 운동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심리와 감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메달 획득만큼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해주면서 감독님이자 지도자분들이 성적에만 치우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궁종목 도관우 선수 / 중3

초등학교에 양궁부가 있어 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감독 선생님이 잘해주시지만 약간의 체벌은 교육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강도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체력훈련이 많이 힘들지만 연습하고 기록을 측정하였을 때, 향상된 점수를 보면 보람되기도 합니다. 양궁을 시작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가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창의인성교육원 김준호 이사장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기록도 좋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기 소신이 뚜렷한 친구들은 어려움도 잘 극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이라는 교육뿐 아니라 정치, 경제, 세계사 분야에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인권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인권강의뿐만 아니라 인성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일 년에 한 번, 두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방향성을 바꾸어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교육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 폭력에 대한 역할극을 하면 참여도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며 효과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한 인권은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권도 들어갑니다. 상호 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사람의 지위마다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경기장 및 훈련장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인격,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선수 보호의 책임을 있음을 항상 주지하고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한다.
- 훈련 시 다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 및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훈련 중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다.
-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훈련 스케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합숙 및 일상생활

- 폭력예방교육 및 대한체육회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석한다.
- 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선수, 보호자, 학교관계자, 병원 등 비상연락처를 반드시 준비해둔다.
- 친밀감의 표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는다.
- 운동 이외의 시간에는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
-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포츠 (성)폭력 대처방법

-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 폭력사고 발생 시 상담, 신고해야 한다.(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 실수로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한다.
-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지도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부산 지역 대학문화 결집하고 꽃피우다 2016 대학종합축제한마당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2016 대학종합축제한마당'이 지난 9월 30일(금) 아시아드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보조A·B구장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와 인제대학교가 주최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체육경기, 명랑운동회, 동아리경연, 초청가수 공연, 놀이마당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으며, 부산지역 26개 대학 총 10,000여 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화합과 친선을 도모했다.



시축 기념 촬영 (왼쪽부터) 동아대학교 김명환 부총장, 동의과학대학교 김영도 총장, 부산광역시체육회 박희재 부회장, 인제대학교 차인준 총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

●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하는 희망의 축제

차인준 인제대학교 총장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乡심을 고취하고 대학 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한 이후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 지역 대학문화를 결집하고 꽃피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화합하는 가운데 더 큰 세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축제가 될 것이다. 참가 학생들 각자의 소속 대학은 달라도 미래지향적인 공동체 의식과 창조적인 문화의식이 하나로 모아지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백종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눈이 시릴 정도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 부산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잠시나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될 대학종합축제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하루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고, 젊음과 끼를 마음껏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 푸른 꿈 높이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젊은 지성인 여러분이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더없이 큰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 지역 대학문화 육성에 이바지

대학종합축제한마당은 전국 유일의 대학종합축제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그 입지를 다져왔으며, 젊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개최됨에 따라 지역 대학문화를 육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축구, 농구, 족구 등 3개의 종목체육경기와 릴레이, 비전투 썰기, 파도타기, 에어봉, 바람을 잡아라 등 다채로운 명랑운동회가 펼쳐져 경기장 전체를 응원과 함성으로 가득 메웠다. 또 동아리 경연에는 18개 팀이 참가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져온 가요 및 댄스 실력을 당당하게 선보였다. 그 외에도 슈퍼비, 먼도, 기리보이 등 초대가수를 초청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으며, 내년을 기약하며 축제의 막을 내렸다.



체육인과 동호인이 함께 하는 체육 축제 제27회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체육인 통합의 밤

부산생활체육의 최대행사이자 통합체육을 알리고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무대가 된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체육인통합의 밤' 행사는

부산체육의 심장이자 스포츠의 자부심인 시체육회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국민행복을 창조하고

부산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지를

새로이 다졌다.

선의의 경쟁으로 펼쳐진 체육 한마당

시체육회는 지난 11월 6일(일), '제27회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체육인 통합의 밤'을 개최했다. '생활체육축전'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배구, 탁구, 볼링, 태권도, 검도, 그라운드골프, 체조, 국학기공, 줄넘기, 줄다리기, 당구 등 15개 종목에 4,000여 명이 참가하여 아시아드보조경기장 등 8개 경기장에서 구·군 대항전으로 치러졌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국민체력의 기반이자 국가 스포츠 경쟁력의 기초이다. 함께 어울려 뛰고 즐기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부산시민, 나아가 온 국민이 건강해지고 이웃 간의 벽도 허물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뽐어내는 체육의 강력한 에너지는 국가성장의



제27회 부산

생활체육축전

동력이 될 것이다. 선의의 경쟁으로 함께 맘 흘리며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한마당! 이것이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종목별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 전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회를 전했다.



체육인 통합의 밤, 비전 실천하기를 기대

사직체육관에서는 경기시상식, 비전선포식, 축하공연 등의 내용으로 '체육인 통합의 밤' 행사가 펼쳐졌으며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임원, 생활체육 동호인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체육인 통합의 밤'에서는 '풍물굿패 소리결집'과 '이비발리댄스 키즈공연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체육경기상(질서상, 구민화합상, 건강상, 경기운영상) 시상,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으로 참가한 '은가비 어린이 중창단'은 2016 KBS창작동요대회우수상, MBC창작동요대회 4회 대상수상, KBS창작동요대회 2회 대상수상, 2012 KNN창녕우포늪창작동요제 대상, 환경부장관상수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팀으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이어서 펼쳐진 행사는 시체육회를 비롯해 16개 구·군 및 72개 종목의 회기가 입장하여 무대를 집중시켰으며, '부산체육의 정책비전 제시와 엘리트체육화와 생활체육의 통합'을 기념하여 "부산체육, 어제의 50년, 내일의 무한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부산체육의 과거와 체육회 통합을 통한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또한 시민행복을 창조하고 부산체육 미래성장의

부산체육인 통합의 밤



동력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비전선포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즐기는 체육, 체육의 통섭, 스포츠로 부산을 키웁니다.'로 앞으로의 비전을 실천하는 부산시체육회의 당찬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지역 음악회 다수의 특별출연 경력을 가진 실력과 합창단인 '금정구 여성 합창단'과 '뿐이고', "나 무꾼" 등을 노래한 박구윤, '전국 TOP10 가요쇼'에 출연하는 지원이 등 축하공연으로 부산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무대를 연출하였으며 부산체육의 심장이자 스포츠의 자부심인 시체육회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보여준 무대였다.



위) 축하공연-은가비 어린이 중창단 / 아래) 질서상 1위 강서구, 2위 기장군, 3위 사하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축사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즐기는 체육, 체육의 통섭, 스포츠로 부산을 키웁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올해는 통합대한체육회가 출범하여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스포츠가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생활체육은 이제 우리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복지이다.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를 생활체육의 바탕 위에서 전문체육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부산시 체육인 여러분도 스포츠를 통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제27회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체육인 통합의 밤이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축제의 열기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부산광역시, 나아가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부산선수단 종합 6위, 성취상 2위 수상 쾌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성취상 2위 수상 기념 촬영



성취상 2위를
수상하기까지

97th
NATIONAL
SPORTS
FESTIVAL

부산선수단은 2000년도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 이후 16년 만에 성취상 2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취상은 전년 성적대비 성취율이 높은 3개 시·도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서 성취상 1위는 개최지 충남이 차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부산이 성취상 1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골프 명문' 학산여고 단일팀이 출전하여 부산 남녀 골프 대표팀이 전국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골프가 채택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여자부 단체전에서 은메달, 개인전에서 은메달, 남자부 단체전 4위를 기록했다.

부산체고 세팍타크로팀은 이우진·유미호·정지훈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대회 2연패를 일궈냈다. 지난해 5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하였으며 올해도 5개 전국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사격 진중오(KT) 선수는 10m 공기권총 개인전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펜싱 정승화(부산시청) 선수는 남자 일반부 에페 결승에서 국가대표 정진선을 15:14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펜싱여자 일반부 사브르에 출전한 지영경(동의대) 선수도 김하은(서울시청) 선수를 15:14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1월에 창단된 부산공동어시장 배구팀은 창단 첫해 우승이라는 기적을 가져왔고, 경성대학교 야구팀은 상무를 꺾은 후 홍익대(세종)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대회 마지막 날 부산 중앙고 팀이 농구 남고부 결승에서 안양고(경기)팀을 88:70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다수 종목에서 선전하여 부산선수단의 자긍심을 높였다.



성취상 2위 수상 기념 촬영
1위 충청남도체육회, 2위 부산광역시체육회,
3위 대전광역시체육회



제97회 전국체육대회
THE 9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시상식

자랑스런 선수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회원종목 단체 입상팀 기념촬영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부산시체육회는 11월 8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부산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유공자들을 시상했다. 지난 10월, 아산시 등 충청남도에서 개최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부산선수단은 전년 대비 4,778점이 상승한 42,153점을 획득하여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6위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경쟁 시·도인 인천을 5,268점 차로 따돌려서 6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성취상 2위 입상배 봉납
좌)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
우) 부산광역시체육회 서병수 회장



MVP 수상 기념촬영
좌) 경성대학교 야구부 운영한 감독
중) 박용수 회원총목 단체장 연합회장
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자전거 이해진 선수



지난 11월 8일(화) 부산시청에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합 우승, 종합 2위, 종합 3위를 차지한 12개 종목단체에 대한 시상과 종합점수가 전년 대비 500점 이상 향상된 8개 종목단체에 성취상을 수여했다.

또한 전국체전의 부산선수단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특별상과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한 감투상과, 부산선수단 중 최고의 성적을 이룬 단체 및 선수에 대하여 최우수상 시상을 가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전거 종목의 이해진 선수는 전국체전에서만 5연패를 달성하였다. 이해진 선수는 "이번 올림픽 출전 후, 준비시간도 많이 없었고 몸이 지쳐 있었지만, 주위의 격려와 친화적인 분위기로 이번 체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향후 대회에서 결과가 당연히 우승이라는 성적보다는 스스로를 넘어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6연패를 다짐하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최우수팀의 경성대학교 운영한 야구감독은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였다. 중간에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올해 전국체육대회까지 3관왕을 달성하였다. 지금은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무팀을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선수개인을 위해서 1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세탁타크로협회 전무이사로서, 소속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국체전 출전 전 부별 우승을 기록의 세운 최영완 전무이사의 소감도 들을 수 있었다. "저희는 조금 차별화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 그리고 부산체고 선수들로 구성된 부산팀은 우수한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와 적극적인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포함한 5개 전국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개최했던 총 10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였습니다. 현재,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세탁타크로의 종주국인 태국으로 가서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유공자 시상 명단



●● 특별상

소속	성명 / 직위	공적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사장	2016년 1월 배구실업팀 창단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단 첫해 전국체전 우승
부산환경공단	이종원 이사장	세탁타크로 남/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전국체전 동반우승으로 종합성적에 기여
중앙고등학교	정창영 교장	교내 농구부 육성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1992년 이후 24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
경성대학교	송수건 총장	전국최강 상무팀을 꺾고(8강)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우승, 야구 종합우승에 기여
학산여자고등학교	신학순 교장	교내 골프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여자부 단체 2위, 개인 2위로 골프 종합우승에 기여

●● 감투상

소속	성명 / 직위	공적
세탁타크로협회	최영완 전무이사	협회 전무이사로서 소속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체전 출전 전 부별 우승
부산체육고등학교	전제욱 근대5종 남고코치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국체전 고등부 단체 2관왕, 개인 2위로 근대5종 종합우승에 기여
백양고등학교	송지은 핸드볼 코치	소속팀의 체계적인 선수관리와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국체전에서 선전분투
중앙고등학교	양홍석 농구선수	압도적인 기량으로 중앙고 전국체전 우승과 전국대회 3관왕을 이끌었으며 타의 모범선수
동래고등학교	오찬영 테니스선수	전국체전 개인전 우승 및 각종 세계대회 출전, 부산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임

●● 감사패

소속	성명 / 직위	공적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부산대표 선수단을 격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
(주)부산도시가스	한치우 대표이사	

●● 최우수선수

단체

종목	소속	공적
야구	경성대학교	·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 · 프로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무팀을 8강에서 격파 · 부산선수단 중 최고득점 팀(1,208점 획득)

개인

종목	성명	소속	제97회 체전성적
자전거	이해진	스포원	대회 2관왕, 체전 5연패

지난 9월 24일(토) 구덕운동장에서 육상의 저변 확대 및 꿈나무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5회 부산 초·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지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하여 5회째를 맞은 육상경기 챌린지대회는 올해 전문선수가 출전하는 교육감배와 비전문선수들이 출전하는 챌린지대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교육감배는 69개 종목에 338명이, 챌린지대회는 32개 종목에 540명 등 총 101개 종목에 87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육상 저변 확대와 선수 발굴을 위한 초석

제5회 부산 초·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지대회



선수발굴 체계 다변화에 노력할 것

비전문선수들이 출전하는 챌린지대회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하여 교육감배에서는 볼 수 없는 종목들의 경기도 진행되었다. 볼텍스 던지기과 터보자브 던지기로, 유소년 학생들의 던지기 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시체육회는 수영, 체조 종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실을 올해 대회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육상에서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챌린지부문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학년별(3~5학년) 10명씩 총 30명을 모집하며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챌린지대회는 전문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를 펼치며, 일선 학교에는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실을 운영하여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전문선수로 육상코치 합니다. 육상 종목은 물론이고 다른 종목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에 선수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선수발굴 체계를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1912년 '제5회 올림픽경기대회' 때 17개 국가가 모여 창립했다. 1921년에는 국제 공통의 경기규칙과 세계기록 공인제도를 결정하였다. 국제올림픽 대표권이 있으며 각국의 경기규칙과 아마추어 규정도 본 연맹의 규칙에 따르며 경기에서는 민족·종교·정치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 IAAF(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경기에는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세계실내선수권대회, 세계하프마라톤 선수권대회 등이 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육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육상 문화, 회원 활동과 경영 관리, 일반사무, 경기운영, 장비, 코치, 의학 지원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IAAF 개발위원회 산하 발전 부서는 육상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일하며 경제적 문제 해결, 과학적 연구, 교육적·기술적 출판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센터를 두어 고도의 육상 훈련을 위한 젊은 육상인들을 위한 훈련 캠프 운영, 세미나와 강좌 개설 등을 진행하고 현재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케냐, 푸에르토리코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술심판·코치교육 검증시스템을 운영하여 육상의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족구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

제27회 부산광역시장기 족구대회

지난 10월 2일(일) 부산환경공단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제27회 부산광역시장기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건전한 여가문화 활용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족구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족구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동석 족구협회장은 "주5일제 근무 실시와 웰빙 붐이 일면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오로지 생활체육 족구 중흥을 위해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우리'라는 마음 하나로 족구 저변확대와 기술개발에 부산족구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족구장, 승부욕보다는 넉넉함과 상대팀을 배려하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생활체육정신에 입각한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될 때 족구의 저변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구기 종목인 족구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가치 향상은 물론 건전한 사회, 아름다운 지역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라며 대회사를 전했다.

부산광역시 양공협회 이승락 회장 장관상 표창



좌) 안재권 명예
동래소방서장
우) 부산시 양공협회
이승락 회장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소방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이바지

지난 11월 9일(수) 동래소방서에서 '제54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이승락 양공협회 회장이 '제54주년 소방의 날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고, 봉사정신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승락 회장은 지역사회에 소방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소방안전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추석·설 명절 동안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당부하면서 격려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소방의 날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등의 기념행사를 하다가 1963년부터 내무부 주관 1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하였다. 이후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고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각 소방기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54주년 소방의 날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수상 기념촬영



올바른 산악문화 조성 산악인 자긍심 고취 기대

제12회 부산산악문화축제, 제47회 금정제 및 제28대 부산산악협회 김경섭 회장 취임식

지난 10월 15일(토)부터 19일(수)까지 금정산 일원에서 '제12회 부산산악문화축제', '제47회 금정제' 및 '제28대 부산산악협회 김경섭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2회 산악문화축제는 등산 동호인이 함께 어울려 올바른 산악 문화 정착과 축제 한마당을 통하고,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최됐다.

건강한 산악문화, 국민 삶의 질 제고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부산 발전과 부산시민의 무사등반을 기원하는 산신제, 지정코스를 통한 산행 및 자연보호 행사를 통한 부산시민 등산대회, 산악인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형태의 운동회와 함께 노래자랑을 통한 산악인 한마당축제, 산그림 전시회, 산악도서 전시회, 산악영화 상영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사)부산산악협회는 산악 범시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여가 활용과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 회원단체의 권익 향상을 통하여 산악문화를 지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하여 산악 활동의 지도자적 역할과 안전과 도전, 개척 정신을 통해 올바른 산악 정신 함양과 산악 문화 발전에 노력한다. 그리고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각종 대회 출전에 파견하여 지역과 국가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대한산악협회 부산광역시협회 김경섭 회장은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에서 우리 산악계도 이러한 흐름에 걸맞은 산악문화의 바른 정착을 통하여 산과 함께 느낌의 미학 속에서 산우님들의 삶이 알차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산악문화축제 또한 흥겨움과 여유로움의 다양한 테마로 산우님을 반길 것입니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산과 맺어온 인연을 추억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며, 금정산 능선길을 산우님들과 함께 오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호흡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하여 내일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축제가 지금껏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선·후배 산우님들의 정성 어린 배려와 결속된 동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모두가 함께하여 어우러짐의 한마당으로 흥겨움과 보고 느끼고 즐기는 축제로 나아가는 변화를 통해 우리 산우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대회사를 전했다.



좌) 한오름산악회 좌기봉 회장
중) (사)대한산악협회 부산광역시협회 김경섭 회장
우) (사)한국산악회 이용대 자문위원

산악 전문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

이날 참석한 내빈 중에는 이용대 (사)한국산악회자문위원, 좌기봉 한오름산악회장이 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정대상은 산악회에 공로가 많거나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이용대 (사)한국산악회자문위원은 "젊었을 때 절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산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산악을 하면서 암벽타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등산의 완성은 살아서 돌아오는 지혜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상을 오르는 것은 선택이며, 하산은 필수입니다. 현재까지 등산교육기관에서 35년을 근무하였으며, 지금까지 산악인을 양성하기 위해 코오롱등산학교에서 배출한 제자가 18,500명입니다. 돌아보니 산악인들 중에 뜻깊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뿌듯할 따름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좌기봉 한오름산악회장은 "산악회에서 진정한 산악인을 양성하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한오름 등산학회를 1979년도에 개교하여 6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순백의 산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끈기와 열정,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는 '항상 꿈을 꾸는 산에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뜻을 마음에 새겨서 후배들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호연지기를 함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MOUNTAIN EXPERT

● 김경섭 제28대 부산산악협회 회장

주요 약력

- (주)대우 인터내셔널 산악회(산행 대장)
- 부산 뫼무리 산악회(회장, 현 고문)
- 부산등산아카데미(현, 교장)
- 부산등산학교(현, 교장)
- 부산 산용산악회(현, 고문)
- (사)부산광역시 산악연맹 일반등산 이사
- (사)부산광역시 부회장
- 다이나믹부산 에베레스트원정대 지원대장
- (사)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 상임이사 및 위원장(현, 고문)
- (사)부산광역시 산악연맹 자문위원(현)
- (사)부산광역시 산악협회 초대회장(현)

등산 입문 및 주요 활동

- 화목한 사내 분위기 조성 및 조직 결속을 목적으로 조직된 직장산악회를 시작으로 본격산행 입문
- 전문 등반을 위하여 일반 산악회 입회 및 전문 개척 등반 활동
- 재능 기부를 통한 산악 문화 발전을 위해 (사)부산광역시 산악연맹 일반등산 이사 및 부회장, (사)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 이사를 거쳐 위원장을 역임 하면서 국내 산악 발전에 기여함
- 다이나믹 부산 회원원정대 지원대장으로서 8,000급 14좌 등정 완성에 공헌
- 건강한 생활 체육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등산학교를 창립하여 일반인들을 통한 무료 강습 등으로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



학생 특기 계발과 지역 체육 발전 도모 첫걸음

성서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

10월 18일(화) 성서초등학교 누리터에서 '성서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성서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은 육상에 끈기가 있는 어린이를 조기 발굴하여 소질을 계발시키고 각종 경기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으로써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성서초등학교 육상부 선수단은 김재곤 지도자와 서승우(6), 우동화(5), 김지우(5), 김태린(5), 서다현(5), 신현민(4), 조미란(4), 박서영(4), 서지훈(4), 김민성(4)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 훈련으로 체육인재 양성에 박차

육상부의 지도는 트랙, 필드, 로드레이스로 구분하여 훈련에 들어간다. 먼저 단거리 및 필드 훈련은 동계 훈련과 연계한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문체력과 기술을 정착시키고 컨디션 조절과 완전한 Speed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조깅, 준비체조 및 스트레칭, 피치 보조운동,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웨이트, 인터벌 트레이닝, 전지훈련으로 실시된다. 단거리 및 중거리 훈련은 홈 스텝, 조깅 및 유연운동, 구기훈련, 바운딩, 체력보강 운동 등으로 스피드 강화 및 타임을 통한 실전훈련으로 실시된다. 시합 전에는 스타트, 중간질주, 피니쉬 훈련, 롱피치 중점훈련, 자세교정, 쇼트피치, 지속주 30분, 계단뛰기, 자세교정, 순발력, 조주훈련, 상·하체 근력훈련, 유연성 집중 훈련으로 컨디션 조절에 중점을 두고 기술 정착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성서초등학교에서는 소질 있는 어린이를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훈련할 계획이 있으며,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것이다. 또한 대회가 없는 학년의 어린이도 선발하여 다음 경기에 대비하고, 달리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육상 운동이 힘든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력과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을 길러서 대회에 참가하는 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TECHNICAL TERMINOLOGY

●● 육상 용어알기

그립(Grip)

창, 장대높이뛰기용 Pole, 해머의 손잡이 등을 말한다. 창, 그립은 매듭이나 주름이 없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끈으로 감아 붙여도 좋다. Pole은 접착성 테이프를 2중 이상으로 감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해머의 그립은 한 겹, 두 겹 모두 가능하지만 변형시킬 수는 없다.

대쉬(Dash)

힘차게 달리는 것(질주).

데드히트(Dead Heat)

경주에서 거의 동시에 골인하는 것.

랩(Lap)

트랙을 한 바퀴 도는 일.

인터벌(Interval)

허들경기에서 허들의 간격.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소식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9월 23일(금) 스포윈 안전재난 체험관을 방문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받았으며, 10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2일간 학부모가 참여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10월 30일(일) 꿈나무체능단 가을 운동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가족구성원이 한마음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서! 축구 교실



축구는 민첩성, 속도, 체력을 향상시키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때문에 신체적 기능과 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축구교실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7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준비운동(가벼운 러닝과 스트레칭을 통한 부상 방지, 기초체력 증진)과 본 운동(간단한 기본기 훈련으로는 패스, 슈트, 드리블)이 있고 대부분 축구시합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 축구 |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팀 전체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 중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사회성을 기르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또한 공을 드리블하는 것은 민첩성과 균형감각을 향상시켜주며 뼈와 근육을 성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과체중을 감소시켜 당뇨병을 예방시켜 준다.

센터 환경 정비



이어서 지난 9월, 회원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쾌적하고 깨끗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층 로비, 수업장소 등 센터 전관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10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센터 주위가 은행나무 열매, 나뭇가지 등으로 뒤덮여 이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외곽대청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회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좋은 환경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목)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직장에서의 업무 또는 강습 중에 회원과 직원 간의 올바른 직장생활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으로 지역사회에 이끌어가는 직원부터 의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인 센터로 개선해 갈 것을 강조했다.

특별 프로그램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수영실기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수상안전 및 수영 능력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비상시 자기 생명보호 능력 강화, 수영 기능체득으로 인한 신체의 균형적 발달, 심폐기능 강화 등 학생건강 증진 및 유지, 기초 체력향상을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공포심을 극복하며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수영 실기교육을 준비하며 2017년에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복구국민체육센터

■ 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공사 마치고 ‘개장’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센터 환경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센터는 수영장 수조 바닥과 벽면 등을 새로 정비하고, 샤워실 천정작업 및 기계실·시설물 보수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한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다양한 생활스포츠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기 회원 수가 2,000여 명이 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건강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국민체력100 전국체력왕중왕 선발대회’ 3년 연속 입상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한 ‘국민체력100 전국체력 왕중왕선발대회’가 지난 9월 24일(토)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어 전국 31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남·여 체력우수자 186명이 참가했다.

복구국민체육센터에서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청년층(만19세~34세) 김미현 선수가 1위, 중년층(35세~49세) 신용재 선수가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청년층의 김미현 선수는 최고점수를 받은 남·여 선수 각 1명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국민체력100사업을 유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센터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이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센터 종사자들의 법정의무 교육지원 사업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교육순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센터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4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센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 성희롱예방, 안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2017년 수능 수험생 대상 이벤트’ 실시



2017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목)부터 2017년 2월 28일(화)까지로, 등록자에 한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수능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즐거운 체육취미 활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질 계획이다.

■ ‘차별화 된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 개설 운영

또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타바타, 줌바로빅, 배드민턴, 스트레칭교실 등이다. 11월부터 개강하는 시니어로빅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을 편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프로그램 문의 365-7070)





무게만큼 오래된 바벨의 역사
바벨을 들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한
바벨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돌과 같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경기가 있었으며 중세에 접어들면서 힘자랑으로 돌 던지기가 독일에서 치러졌다. 이 같은 경기는 힘겨루기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1800년대부터 근대적인 역도 경기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 덤벨을 사용하는 운동경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이 운동이 자리 잡게 된 것은 독일의 구츠무츠나 안에 의해서였다. 비로소 안의 제자 아이젤 렌에 의하여 덤벨 운동의 지도서가 만들어졌다.

1896년, 최초로 열린 올림픽대회에서는 역도가 체조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그 종목은 한 손 및 두 손에 의한 저크가 다였다. 또한 현재와 같은 체급도 없었다. 1920년 제7회 올림픽 대회부터 독립된 경기로 인정을 받았으며 체중별로 5개 체급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게 되었다.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양손에 의한 프레스(추상), 스내치(인상), 저크(용상)의 세 종목이 채택되기에 이르렀지만 추상 종목은 1973년 다시 폐지되었다.

현재와 같은 역도가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 것은 1928년 역기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 후이다. 1936년에는 조선 역기 연맹이 조직되었으며 1946년 해방 후 조선 역도 연맹이 발족하였고, 다음 해인 1947년에 우리나라 역도 사상 최초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올림픽에서 한국선수가 처음 출전한 것은 1948년 런던 대회 때이며 이 당시 김성집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바벨은 '말을 더듬거리다.'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인 'babble'과 발음이 거의 같으며 뜻도 비슷하다. 바벨은 신이 사람들을 혼란시켜 제각기 다른 말을 쓰도록 한 장소다. 히브리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다.



역도종목
알아보기

인상 (Snatch)

바벨은 선수 다리 앞에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손바닥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 바벨을 잡고 다리를 벌리거나 구부리면서 한 번의 동작으로 바닥에서 머리 위까지 양팔이 쪽 퍼지도록 들어 올린다. 심봉이 몸통을 따라 연속동작으로 올라가고, 드는 동안 발 이외의 어느 부분도 바닥에 닿아서는 안 된다. 들어 올린 바벨은 심판이 심봉을 경기대에 내려놓으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팔과 다리가 쪽 퍼지고 발이 동일 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심봉이 선수의 머리끝을 지날 때까지는 손목을 뒤집지 말아야 한다.

선수는 적절한 때에 다리를 벌리거나 웅크린 자세에서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양발을 동일 선상에 놓고 몸통과 바벨을 수평으로 평행이 되게 한다. 심판은 선수가 몸 전체를 완전히 부동자세로 하자마자 바벨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용상 (Clean and Jerk)

㉔ 제 1동작 (Clean)

바벨은 선수 다리 앞에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손바닥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 바벨을 잡고 다리를 벌리거나 구부리면서 한 번의 동작으로 바닥에서 어깨까지 끌어올린다. 이 연속동작 수행 시 심봉이 무릎과 넓적다리를 따라 스쳐 지나갈 수 있다. 최종자세 전에 심봉이 가슴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심봉을 쇄골이나 젖꼭지 위 가슴 혹은 완전히 구부러진 팔에 의지한다. 양발은 제 2동작(Jerk)을 하기 전에 다리를 편 상태로 동일 선상으로 복귀시킨다. 선수는 적절한 때에 원래 자세로 돌아와 양발을 동일 선상에 놓고 몸통과 바벨을 수평으로 평행이 되게 한다.

㉕ 제 2동작 (Jerk)

선수는 양다리를 구부리고 바벨을 양팔을 수직으로 뻗어 완전히 편 상태까지 가져오도록 양팔뿐만 아니라 양다리를 편다. 양팔과 양다리를 편 채로 양발을 동일 선상으로 복귀시키고 심봉을 경기대에 내려놓으라는 심판의 신호를 기다린다. 심판은 선수가 몸 전체를 완전히 부동자세로 하자마자 바벨을 내려놓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스포츠산업에 날개를 달다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의 가치를 극대화

돈은 스포츠 수준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비료 역할을 한다. 그리고 스포츠는 돈을 창출한다. 스포츠와 돈을 연결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터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다.

150여 년 전만 해도 '스포츠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 야구가 막 태동하기 시작한 1860년대 전미야구선수협회(NABBP)는 구단이 선수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당시 포리스트 시티스라는 팀에서 투수로 활약하던 앨버트 스팔딩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스팔딩은 수완이 좋았다. 그가 펴낸 야구 가이드북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으며 스포츠용품 사업에도 손을 뻗어 성공했다. 1876년 스팔딩은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차려 사상 처음으로 야구 공인구를 만들었다. 스팔딩의 회사는 성장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프로농구(NBA)를 비롯해 세계 각국 프로농구 공인구를 책임지는 바로 그 회사다. 이처럼 스팔딩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 또한 2013년 한 해에만 7800만 달러(약 830억 원)를 벌었다.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에 해당하는 슈퍼볼 경기의 TV 광고 단가는 30초당 400만 달러(약 42억 원)를 호가한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월드컵과 올림픽으로 수조 원을 벌어들인다. 돈 때문에 스포츠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겠다.

최근 세계적으로 스포츠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에 신선함을 느끼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한다.

열정 하나만으로 스포츠의 모든 것에 대한 전문가로 거듭나야 하는 직업, 스포츠 마케터에 대해 알아보자.

스포츠 마케터는 무슨 일을 하나

스포츠 마케팅의 영역은 무한에 가깝다. 스팔딩처럼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서 스포츠를 이용한 광고 활동이나 스포츠 중계권 관련 사업, 선수관리,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이 모두 스포츠 마케팅에 속한다. 스포츠 마케터가 종사하는 단체는 스포츠마케팅 서비스 전문업체를 비롯해 기업 내 스포츠마케팅팀,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회사, 프로 스포츠팀, 스포츠 관련 조직 및 협회, 스포츠 미디어, 종합 광고대행사까지 스포츠 마케터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선수 관리 또한 스포츠 마케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선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손연재·추신수·심석희 등 스타 선수들을 고객으로 하는 스포츠마케팅 서비스 전문 업체도 있다.

누가 적합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을 잘하려면 각 종목 특성과 팬들의 심리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 기업에 종사하는 스포츠 마케터는 소속 기업의 이미지와 가장 어울리는 종목을 찾아 해당 스포츠단체와 후원이나 광고 협상을 조율한다. 선수 관리에 임하는 스포츠 마케터는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선수에게 해줘야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 마케터가 되려면?

먼저 스포츠를 많이 보고, 팬들의 반응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많이 보면 아는 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차곡차곡 쌓인 스포츠 관전 경험은 훗날 실무 영역을 위한 자산이 된다.

또한 어학 공부도 중요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후원하는 삼성처럼 요즘 국내 대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은 해외에서 더 활발하다. 특히 미디어는 해외 스포츠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데 역시 어학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프로 스포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포츠 마케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주말에 주로 열리기 때문에 남들처럼 주말이라고 쉬기가 어렵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 마케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지만, 스포츠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 2016년도 스포츠영웅에 김연아 선정

11월 23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10월 18일
2016년도 스포츠영웅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피겨여왕'
김연아(빙상_피겨, 25세)를 선정했다.

Yuna Kim

선정위원회 54인으로부터 선정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5일 제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위원장 이태영)를 열고 국민지지도의 정량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1위를 차지한 김연아를 '2016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 이에 김연아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도 11월 23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했다.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최종후보자 6명(김연아,故김일, 박세리, 박찬호, 故이길용, 차범근)에 대해 국위선양 공헌도, 국내 스포츠발전 공헌도, 환경적 제약 극복,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등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일반 국민, 체육단체(96), 추천단(40), 출입기자(29)를 대상으로 체육발전 공헌자 13명, 선수 및 지도자 41명 등 총 54명을 추천받았다.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와 심사기재단(29명)은 후보자 54명 중에서 2차 심사, 추천을 거쳐 최종후보자 6명을 선정했다.

우수한 체육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

체육회 스포츠영웅사업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킨 체육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고자 2011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그간 베를린올림픽 육상(마라톤)금메달리스트 故손기정, 해방 후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역도의 故김성집,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서윤복, 한국스포츠 근대화의 토대를 다진 故민관식,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플라이트급) 우승자 장창선,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2kg급 우승) 양정모,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MVP) 박신자,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고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킨 前 IOC부위원장 및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한 김운용을 선정한 바 있다.



주요 업적 및 상훈

- 2007~2013년 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여자싱글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2 획득
- 2009년 ISU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금메달
-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은메달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및 조직위원회 홍보대사 역임
- IOC 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역임
- 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2013년 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 여자 싱글 1위
- 2013년 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2014년 제68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 1위
- 2016년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대한민국이 사랑한 스포츠 영웅

‘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국 대학생이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한국인은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그가 이제 트랙의 마지막 직선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자 ‘손’이 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독일역사박물관 독일방송기록보관실 - 손기정 선생이 달려온 발자취를 따라서 그가 한국체육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난으로 시작된 마라톤 인생

손기정은 191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소학교 다닐 무렵 해일로 인해 집안이 몰락한 손기정은 어린 시절부터 장사에 나서야 했으며 소학교를 졸업한 뒤 16세 무렵에는 중국 단둥(丹東)의 회사에 취직했다. 이 무렵 손기정은 차비가 없어서 신의주~압록강 철교~단동에 이르는 20여 리 길을 매일 달려서 출퇴근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기가 그의 체력단련에 도움이 된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엔 뛰어난 소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에 소질을 보였다. 품팔이와 배달 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손기정은 겨울에 얼어붙은 압록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을 무척 부러워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스케이트를 살 돈만 있었다면 스케이트 선수를 했지 마라톤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동 소질을 발휘할 길은 경비가 들지 않는 달리기뿐이었다.

양정고등보통학교 입학 후 본격 마라톤 길

손기정은 소학교 6학년 때 신의주와 만주 안동현 사이를 달리는 안의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청장년을 누르고 5,000m 달리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마라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1년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조선 신궁 대회)에 평안북도 대표로 출전하여 5,000m에서 2위를 하였다. 이듬해 1932년 동아일보 주최 하프 마라톤에서 2위를 하면서 이 인연으로 육상 명문인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된 손기정은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얻고 본격적으로 마라톤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양정고등보통학교 입학 후 1932년 동경~요코하마 간 역전경주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하여 1933년 제3회 15마일 크로스컨트리경주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1936년까지 13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 그중 10번이나 우승했다. 이렇게 본격적인 선수로서 훈련을 받은 손기정의 실력은 나날이 성장하여 각종 장거리경주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슬픔의 마라토너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시작된 마라톤. 이 경기는 왕복코스를 도는 경기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56명의 선수들이 함께 출발했다. 당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선수는 1932년 LA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였던 후안 카를로스 자바라였다. 자바라의 성급한 독주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손기정은 자신의 페이스와 기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사전에 코스를 답사해 둔 것도 도움이 되었다. 결국, 30km 지점 비스마르크 언덕에서 자바라는 뒤로 처지고 손기정과 영국의 하퍼가 1, 2위를 다투며 앞섰다. 그리고 31km 지점에서 손기정은 마침내 하퍼를 따돌리고 1위로 나섰다. 러닝슈즈가 작아 발에 통증을 느끼면서 그는 남은 레이스를 1등으로 달려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막 일제의 지배에서 풀려난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과 기쁨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결승선 통과 후 손기정은 만세도 하지 않았고 환호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레이스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운동화를 벗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탈의실로 퇴장했다.

은메달을 딴 하퍼의 표정과 대조적으로 그는 우울해 보였다. 경기장에 입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올 때 월계관을 쓴 그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손기정은 월계수 나무로 입고 있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렸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뛰어 얻은 이 영광이 조국의 국권을 피탈한 일본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나흘 후,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에 그의 시상식 장면을 찍은 사진이 한 장 게재되었다. 옆에서 비스듬히 찍은 이 사진은 원래 일장기가 확연히 보이는 사진이었다. <조선중앙일보>는 인쇄 품질이 나쁜 점을 이용해 일장기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게 만든 다음, 신문에 올렸다. 총독부는 인쇄의 문제로 생각하고 검열을 통과시켰다.

손기정이 입은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서 올린 신문 사진. 어디까지나 조선인임을 자부하고 싶은 언론인들의 소심한 항거였다. 이후에 <동아일보>에 다시 한 번 게재되어 논란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는 폐간하였고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더하여 손기정은 월계수나무로 일장기를 가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후 경기 출전이 금지되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이후 1948년 독립국으로서 최초의 올림픽 대회 참가인 제14회 런던 대회 때는 본부 트레이너로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의 국내 유치·개최 등 스포츠의 국가 대사에 참여했으며 선수단 단장, 부단장, 총감독, 감독 등으로 참가한 횟수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그중에서도 1981년 서독에서 개최된 IOC 총회 때의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약과 동 대회 개막식에서 성화 최종 주자로서 뛰었던 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세계가 주목한 마라토너

한편 1993년, 중국이 올림픽 10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올림픽 스타 100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후 미국으로 가서 마라톤 비의 'Japan, 손기정'을 'Korea, 손기정'으로 바로잡는 데 열성적으로 교섭을 벌여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그의 노력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대한인임을, 조국을 위해서는 마라톤 왕국임을 확인시키는 데 온갖 정성을 쏟았다. 이렇게 한국의 마라토너가 국제 무대에서 우승하는 현장에서는 빠짐없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금메달은 현재까지도 일본이 딴 금메달로 되어 있고 올림픽 공식 기록에는 그의 국적과 이름도 일본식 손기테이로 되어 있다. 다만, 그의 일대기에는 국적을 한국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의 이름 손기정을 표기하였고, 당시 일본국적을 달고 경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힘들게 딴 금메달을 조국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한 슬픔 때문이었을까? 1992년 8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황영조의 우승을 기뻐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은 내 국적을 찾은 날이야. 내가 노래에 소질 있다면 운동장 한복판에서 우렁차게 불러보고 싶다."

진정한 우승자를 기리다

손기정은 주권이 상실된 시대에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뛰었고,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회의 사인복에는 한글로 '손기정', 'Korea'라고 적었다. 그는 "한문으로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일본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Korea라고 적은 것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또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부상으로 받게 돼 있던 그리스 투구를 각고의 노력 끝에 1986년 베를린올림픽 50주년 기념행사 직전에 베를린에서 반환받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손기정의 국적이 'Korea'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로로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2002년 별세한 그는 2011년 대한체육회로부터 초대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이 있으며, 유골은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제2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한·중·일 3국
스포츠장관, 올림픽
협력을 향한
첫 발걸음 떼다!

1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평창 선언」 채택(2016.09.2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2일(목)부터 23일(금) 양일에 걸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를 마무리했다. 작년 11월, 3국 정상인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2018년, 2020년, 2022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연이어 유치함에 따라, 우리는 스포츠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위한 3국 간 교류를 심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합의한 데 따라 한국이 제안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류펑 중국 국가체육총국 총국장,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는 첩경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3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평창 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교류협력,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 스포츠 산업 발전, 도핑방지 협력 등의 의제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 간의 전문가 교류와 대회 운영 노하우 공유 등 개최를 위한 준비를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을 함께 발굴해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국이 과거의 긴장을 딛고 공동번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프로 8개 단체 함께
책임진다

3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2016.09.29.)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자성적 노력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프로스포츠 단체(5개 종목 8개 단체/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함께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는 부정행위가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단체·구단·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이에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하여 단체·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그리고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배포

2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2016.09.26.)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이는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내용으로는 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사유화 비리가 20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부조작이 70건(12%), (성)폭력이 23건(4%), 입시비리 16건(2.8%) 순으로 많았다. 신고된 비리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36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스포츠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教師)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스포츠 청렴과
반도핑에 대해
논의하다

4

제2차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 의장단 회의 폐회(2016.09.29.)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8일(수) 평창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 의장단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인 살레 콘바즈 모하메드(Saleh Korbaz Mohammed) 사우디아라비아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롭 코엘러(Rob Koehler) 세계도핑방지기구 부총장과 러시아, 네덜란드 등 9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부와 도핑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인 협력의 예에 대하여 발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 도핑관리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네덜란드 건강복지체육부 과장은 유럽연합(EU)의 반도핑 콘퍼런스 개최 결과를 공유했다. 세계도핑방지기구 부총장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다음 회의는 2017년에 케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운의 빙상스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5

쇼트트랙 고(故) 노진규 선수(2016.10.10.)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0일(금), '제3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 씨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

고(故) 노진규 선수는 2013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알마티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14년 1월까지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골육종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진행하다가 올해 4월 3일(일)에 사망했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로 경기와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고(故) 노진규 선수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심사 의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다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체육유공자 선정이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프로구단 간, 종목 간 성과평가 체계 개선

6

주최단체지원금 배분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2016.10.12.)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등의 지원금에 대한 프로구단·종목 간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권오갑)와 함께 주최단체지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2016년부터 프로구단·종목 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구단과 단체에 주최단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평가지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사와 학계, 언론계 등 프로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했다. 이어서 프로스포츠 단체·구단을 대상으로 총 8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실적 검증을 위해 프로스포츠 단체별 표준손익계산서를 개발해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문체부와 협회는 앞으로 주최단체지원금에 대한 프로구단·종목 간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에 따라 농구와 배구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해 이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제54회 체육의 날 기념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및 체육발전유공자 정부 포상

7

박인비 선수 등 9명, 제54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김연아 선수 등 115명, 체육발전유공자 정부 포상(2016.10.14.)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4회 체육의 날(10. 15.)을 맞아 제54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및 2016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10월 14일(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상자 가족과 체육 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민국체육상은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체육 분야 최고 전통과 권위의 상이며,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을 발굴하여 9개 부문(대통령상 7개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개 부문, 특별상 1개 부문)으로 시상했다.

수상자로는 ▲경기상에 박인비 여자골프 선수 ▲지도상에 박채순 남자양궁 국가대표 감독 ▲연구상에 이종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공로상에 정연석 대한민국 육군 중령 ▲진흥상에 최병태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장 ▲극복상에 한사헌 서울특별시 휠체어농구팀 감독 ▲특수체육상에 김경숙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심판상(장관상)에 원성식 태장중학교 교사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상(특별상)에 송소저 여사가 선정되었다.

체육발전유공 부문에서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했다. 먼저 청룡장에는 김연아 선수 등 11명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맹호장 8명, 거상장 11명, 백마장 27명, 기린장 11명, 포장 22명 등 총 90명이 체육발전유공 부문 훈포장 수훈자로 선정되었다.

문체부 장관, '세계 스포츠·문화포럼' 및 '세계경제포럼' 참석

8

10.20.~21. 일본 동경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스포츠 청렴' 발표 (2016.10.20.)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일본에서 '세계 스포츠·문화포럼(World Forum on Sport and Culture, 10.19.~22.)'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10.19.~22.)'에 참석했다.

세계 스포츠·문화포럼은 일본에서 올해 신설한 포럼으로서, 조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스포츠 청렴(Sport Integrity)'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유산(Leaving the legacy : Mega Sporting Events)'을 주제로 민관의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 콘텐츠·관광 전문가들도 만났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방송(KBS)재팬, 시제이이엔엠(CJ E&M)재팬 등 한국 방송사의 일본법인 뿐 아니라, 쇼치쿠브로드캐스팅, 에이벡스뮤직크리에이티브 등 일본 플랫폼, 유통/배급사의 대표 등이 참석해 일본 내 한류 현황 및 콘텐츠 유통과 마케팅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대신과의 면담을 통해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와 지진 등으로 인한 관광위기, 양국 올림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대신 면담과 민간 관광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방관광콘텐츠 개발 사례 등 양국의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한일 간 협력체계를 공고화해 양국 관광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시, 종합 5위 달성

점수체계 개편 대비...전년 대비 총득점 11,291점 상승(2016.10.26.)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24개 종목에 총 470명이 참가하여, 전년도 종합 10위(106,926점)에서 금메달 82개를 비롯한 20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초 목표 8위를 초과한 '종합 5위(118,522점)'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수영종목이 종합우승, 론볼, 역도, 요트 종목이 준우승을 차지하여 종합 입상했으며, 특히 수영의 박미진 선수가 6관왕에 오르는 등 다수의 선수가 다관왕이 되어 부산시 5위 달성에 한몫했다.

무엇보다 이번 체전에서 선수·동호인부의 점수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고득점 종목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훈련장 확보, 선수보강 및 실업팀 선수 영입,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부산시는 전년 대비 총득점이 무려 11,291점 상승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선수 발굴에 힘써 전문체육 선수로 육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인체육 저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9

문체부, 의혹 다 털고 투명한 문체부로 재출발

조윤선 문체부 장관, 주말 긴급 간부회의 소집, 국민 신뢰 회복 조치 논의(2016.10.31.)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문체부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문체부 사업에 대한 의혹이 다방면에 걸쳐 제기됨에 따라,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에 대해 과감한 정리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지원금, 계약, 인선 등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문체부의 사업과 정책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10

"이제는 평창이다" 흔들림 없이 대회 성공 개최에 총력

세계평화 증진을 통한 평화올림픽 실현에 노력할 계획(2016.11.04.)

조직위원회는 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해 1억 원 이상 재정심의회 엄격 심사 후 집행, 개최도시 인적·물적자원 최대 활용 등 재원 절감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IOC 지원 확대, 스폰서십 목표액 초과 달성(16.10월 기준 목표액 9,400억 원 대비 83% 달성)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경제올림픽 구현에 총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된 저비용·큰 감동의 개폐회식, UHD 생중계,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지역 문화예술의 정수를 담은 문화축제 등을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하는 고품격 문화올림픽을 구현하는 한편, 세계 최초 5G 시현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보안·경비 등에 로봇 활용, 언어 장벽 없는 8개 국어 자동 통·번역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올림픽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발족과 국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종합안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회 안전을 확보하고, 올림픽 휴전 벽(올림픽 직전에 참가국 선수 등이 평화로운 올림픽을 위해 평화메시지와 서명을 하는 용도의 벽) 디자인 개발 및 론칭 등 세계평화 증진을 통한 평화올림픽 실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11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준비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장관 주재 관계자 간담회 개최(2016.11.07.)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7일(월) 2018평창 동계 패럴림픽 준비와 장애인체육 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스포츠문화월드포럼에 참석했을 때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도시의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참석자들에게 "장애인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준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 분야 예산 확보, 패럴림픽 국제신호 제작 등을 비롯해 경기장 인근 숙박시설과 식당·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계 기관·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의 전 종목 출전권 획득과 상위 10위권(TOP-10)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 방안으로 패럴림픽경기장 사전 활용과 아이스슬레지하키 및 스노보드 종목에 대한 실업팀 창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올림픽에 비해 패럴림픽은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이 현격히 차이가 남에 따라 대국민 보급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1인 1경기 관람하기 홍보캠페인, 옥외광고, 방송) 추진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에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의 적극 반영도 건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가대표 훈련일수 증대와 지도자 처우 개선, 경기단체 사무국 인력 증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장애인스키학교 운영,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비개발 및 보급 등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2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시간

부산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일부러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 템플 스테이를 소개한다. 고즈넉한 사찰을 찾아 일 년 동안의 피로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준다면 한결 더 편안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만나는 공식 운영 사찰

보통 '템플 스테이' 하면 일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찰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템플 스테이 운영 사찰을 공식 지정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의 사찰 정보는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수도권은 물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나 120여 곳의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면 전화와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작정 사찰을 찾더라도 적정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템플 스테이 체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약을 원하면 템플 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사찰정보를 검색 한 후 원하는 사찰에 연락하여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예약 후 사찰을 찾으면 숙소를 배정받게 된다. 보통 숙소는 남녀를 구분하여 여러 명이 함께 묵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약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찰 시설의 낙후 정도일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찰은 템플 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해 현대식 시설을 갖춰 놓아 쾌적함을 자랑한다.

숙소를 배정받은 참가자들은 사찰마다 마련된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수건이나 개인 세면도구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미리 챙겨가야 한다. 또한, 사찰이 산에 자리한 점을 감안하여 신발은 편안한 등산화나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산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려면?

부산시 내에서 템플 스테이를 공식 운영 중인 사찰은 범어사, 흥법사, 내원정사, 선암사 네 곳이다. 이중 금정구 금정산에 자리 잡은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 신라 문무왕(678년)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 범어사라는 이름은 금빛 나는 오색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금샘의 전설에서 유래했다.

범어사의 템플 스테이는 '참선'을 위주로 한다. 참선은 수행자가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연등 만들기, 108서원주 만들기, 발우공양, 선다, 율력 등 다양한 범어사 자체 프로그램을 체험하다 보면 복잡한 세상을 잊고 '나와 세상의 풍경을 잠시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현재 범어사에서 예약 가능한 1박 2일형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은 <금어 템플 스테이>와 <휴식형 템플 스테이> 두 가지다.

● 금어 템플 스테이(정원 60명)

금어 템플 스테이는 범어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빛 물고기를 찾는다. 행복도 불행도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다는 것과 같이 수행을 통해 내 자신이 금빛 물고기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1인)

성인 7만 원, 중고생 6만 원, 초등생 5만 원 (부모님 동반 시 체험 가능)

● 휴식형 템플 스테이

휴식형 템플 스테이는 산사에서 지친 일상을 잠시 쉬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1인)

성인 4만 원, 중고생 3만 원, 초등생·미취학아동 3만 원 (부모님 동반 시 체험 가능)



추울수록 건강하게 즐기는 '스키'

보험과 안전수칙으로 대비하는

스키장 사고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실외활동이 쉽지 않은
겨울철이지만, 스키어들은
벌써 설원 위로 달려나갈
생각에 들썩이고 있다.
새하얀 눈길 위를 달리는
짜릿함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릴
만큼 매력적이다.
그러나 스키장에서 다칠 경우,
교통사고와 맞먹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는 512만 명으로, 이 중 1,000명당 2명꼴인 9,9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 부주의의 65%, 과속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키를 즐기는 연령대가 낮은 까닭에 10대~30대가 전체 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부상 부위로는 넘어질 때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해 생긴 무릎 부상이 12%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 부상이 11%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머리 부상의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스키장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꼭 지켜야 할 스키장 안전수칙

- ① 적절한 복장과 보호장비는 필수: 눈 위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다. 햇빛을 차단하는 고글과 선크림, 헬멧과 장갑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불편하더라도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 ② 스키보드 타기 전 준비운동: 스키장 안전사고 대부분은 근육 및 인대부상에 집중된 만큼 준비운동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 ③ 바인딩 강도를 직접 조절: 스키를 타기 전 스키판과 신발을 고정하는 바인딩을 점검해야 한다. 넘어질 때 바인딩이 제때 분리되지 않으면 무릎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④ 자신의 컨디션 체크: 피로도가 높은 오후 시간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활강 중이라도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몸이 좋지 않으면 일정을 되도록 미루는 것이 좋다.
- ⑤ 본인 실력에 맞는 코스 선택: 초보 코스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 또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중·고급 코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⑥ 직활강이나 과속 금지: 스키장 사고 원인의 두 번째가 과속이다. 큰 부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과속은 절대 삼가야 한다.
- ⑦ 휴식 정지는 코스 가장자리에서: 활강 중 휴식이 필요하거나 정지할 때는 지체 없이 코스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슬로프 중앙에 멈춰 있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멈춰 있던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⑧ 음주 후 스키 타는 것은 금물: 음주 스키는 음주운전처럼 자신과 남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인 만큼 반드시 삼가야 한다.



보험 가입으로 만약에 대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한 후 스키장을 찾는 것도 좋다.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부상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장비 파손과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대비하려면 스키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단체로 패키지를 이용하여 스키장을 찾는 경우, 보통 패키지 내에 보험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스키장을 찾는 마니아라면 주변 스키어들과 스키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통 레저보험에서 스키 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 시 출발부터 도착까지 발생하는 상해 또는 사망, 상해후유장애, 장비 손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모두 담보하는지 꼼꼼히 비교해보아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가입주체나 기간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 근무자나 전문 직업인은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고 후 올바른 대처법도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를 받도록 한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사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도 받아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민안전처]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We, Believe"

실종아동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체육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실종아동찾기 "We, Believe" Campaign

대한체육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We, Believe"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참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매년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 아동은 750명이 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는 "We, Believe"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적극 장려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제보는 경찰청 국번 없이 18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국번없이 182



세계질 썰매장
슬레드힐



이색 테이트코스
2030 초보커플존



아빠와 함께 즐겨요
어린이 승마장



'금단의 땅' 둘러보는
경주마랜드 투어

365일 빛의 馬법이 펼쳐진다!
일루미아 빛 축제
Grand Open



국내 최대 빛 테마파크 일루미아

Lets Run PARK 부산경남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새 이름

한국마사회 켈트런파크 부산경남은 매년 2,000여억 원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상충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우구대는 청신차, 물탱크 파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락 IC인근 | 대표전화 051) 901-7114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렛츠런파크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엘린네트워크 **5人** 의료진이 뭉쳤다.



엘린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서면점 | 덕천점 | 구서점



진료내용

눈 / 코 / 가슴 / 지방 / 종아리 / 기미 / 화이트닝 / 주름 / 탄력
리프팅 / 보톡스 / 필러 / 윤곽주사 / 물광 / 비만관리 프로그램

“ 부산체육회원들을 위한 특별한혜택 ”
이번 가을에 만나보세요.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엘린의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T1666-7107 **N** 엘린의원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스타자동차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급 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달동)
StarClass 인증중고차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급 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기 장 051-792-741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47-10
대표번호 1688-2369(Benz) www.mbstar.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 연비: 10.8km/l (도시연비: 9.6km/l, 고속도로연비: 12.6km/l),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l (도시연비: 9.3km/l, 고속도로연비: 12km/l),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6 사회공헌대상

Bⁿ 대선주조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대선주조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순한시원

16.9



대선주조 모델 박기량

PARKLAND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PARKLAND CABRINI J.HASS PRELIN PL SPORTS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옷의 가치, (주)파크랜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입니다

광고: 대선주조는 건강한 기업을 위하여, 안전에나 책임중 시고 발상들을 품어냅니다.